

전쟁의 기억과 <임진록>*

- <임진록> ‘역사 계열’ 한문본을 중심으로 -

정길수**

1. 머리말
2. 영웅 豊臣秀吉
3. 조선 조정의 무능과 의병·관군의 한계
4. 명나라의 ‘再造之恩’과 조선 국왕의 권위
5. 마무리: 崇明意識과 仁祖反正 이후 국왕의 정통성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임진록> 역사 계열 한문본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실재했던 사건이 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적 시각에서 왜곡된 형태로 기억되는 방식을 추적했다. <임진록> 한문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주요 왜장들을 한 시대의 영웅으로 그리는 한편 왜군 병력을 과장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애당초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조선의 전쟁 대응 실패 원인을 조정 신하들의 무능과 무기력, 私意에 의한 黨爭에서 찾았다. 관군과 의병의 활약이 이어졌으나 왜군을 격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조선의 살 길은 오직 명나라의 구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작자의 판단이었다. 그리하여 명나라 神宗은 조선 구원의 열쇠를 가진 절대자로, 명나라 원병의 지휘자 李如松은 조선의 구세주로 그려졌다. 강력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명나라 군대에 關羽의 神兵까지 합세하여 왜군을 물리친바, 명나라는 임진왜란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준 은혜, 이른바 ‘再造之恩’을 베푼 나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구원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은 조선의 절대존엄 宣祖였다.

1649년 이후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진록> 한문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호도하는 한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명나라와 국왕 선조에게 돌리고자 했다. 이는 임진왜란 종전 이후 조선 조정의 전쟁 평가와 동일하다. 작품 전반에 투영된 崇明意識을 통해 宣祖에서 仁祖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강조되나, <임진록> 한문본의 임진왜란 기억 방식은 春秋大義와 對明義理를 표방하며 丙子胡亂의 치욕을 완화하거나 병자호란 전후의 조정 대응에 대한 의문을 불식하고자 한 계층의 생각과 잘 조응된다.

핵심어 : <임진록>, 역사 계열, 한문본, 임진왜란, 再造之恩, 崇明意識

1. 머리말

壬辰倭亂은 17세기 동아시아 격변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다. 오늘날 ‘朝日戰爭’ 혹은 ‘7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왜군의 선발대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어 1598년 11월 19일 왜군이 철수하기까지 6년 8개월 동안 벌어졌던 전쟁이다.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 병력은 20여 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內戰으로 단련된 일본의 정예 부대는 지상전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았고, 특히 전쟁 초기에는 별다른 장애 없이 승승장구하며 조선 전역을 거의 손아귀에 넣었다.¹⁾

‘임진왜란’이라는 실재했던 사건은 하나다. 그러나 저마다 처한 상황과

1)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아세이문화사, 2007), 35~86면;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휴머니스트, 2007), 235~332면 참조.

입장에 따라 하나의 사실은 달리 해석되고 왜곡된 형태로 기억된다. 조선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긴 임진왜란이 전쟁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재해석되어 새로운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본고의 관심사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을 제재로 삼은 대표적 서사문학 작품인 <임진록>, 그 중에서도 이른바 ‘역사 계열’로 분류되는 <임진록> 한문본²⁾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 임진왜란 직후부터 17세기 내내 가장 유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진왜란 평가의 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본고의 주된 대상인 ‘역사 계열’ 한문본으로 삼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임진록>은 현재 60여 종의 異本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내용의 이본을 묶은 ‘異本群’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임진록> ‘이본군’은 서로 대단히 큰 차이를 지녀 약간의 字句 출입이나 일부 話素의 첨삭과 같은 일반적인 이본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없다. 특히 내용이 전혀 다른 세 핵심 이본군, 곧 ‘역사 계열’·‘최일영 계열’·‘관운장 계열’은 임진왜란을 공통의 제재로 삼아 몇몇 공통적인 話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거의 별개의 작품이라 보는 시각이 가능할 만큼 그 차이가 크다.³⁾

‘최일영 계열’은 허구적 인물 최일영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웅의 일대기 구도를 골간으로 삼고 임진왜란 관련 다양한 화소를 엮되 실존인물의 행적이나 관련 설화의 주역을 모두 최일영으로 대체했다. 최일영은 20세에 좌의정이 되어 임진왜란을 예견했으나 오히려 宣祖의 진노를 사 유배형을 받았다가 재기용되어 대활약을 펼치고 영의정으로서 종전 이후의 수습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일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최일영 계열’의 대다수 이본에는 李舜臣이 등장하지 않는다. 金應瑞와 姜弘立의 일본정벌

2)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壬辰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34장(<古 2154-17>)의 한문 필사본이다. 人名 표기 오류가 대단히 많고 곳곳에 誤字가 있어 善本이라 하기 어렵지만, ‘역사 계열’의 유일본으로서 ‘역사 계열 변형’ 異本群의 앞에 놓이며, 그 母本은 <임진록> 전체 계열을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임철호, 『임진록 연구』(정음사, 1986), 10~36면; 『임진록 이본 연구 1』(전주대출판부, 1996), 7~11면 및 455~461면 참조. 여섯 개의 이본군은 ‘역사 계열’, ‘최일영 계열’, ‘관운장 계열’과 이 세 이본군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이순신 계열’, ‘역사 계열(변)’(‘역사 계열’의 변형), ‘혼합 계열’을 말한다.

담을 삽입한 점은 ‘최일영 계열’의 형성시기가 임진왜란은 물론 병자호란으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임을 시사한다.⁴⁾ ‘최일영 계열’은 <임진록> 전체 이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허구적 인물 최일영의 영웅일대기를 바탕으로 壬辰倭亂史를 재구성한 것이다 보니 허구화의 폭이 매우 커서 기억의 변용 맥락을 추적하고자 하는 본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⁵⁾

‘관운장 계열’은 역사적 사건과 허구적 서사의 안배, 이본군 내에서 한문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에서 ‘최일영 계열’보다 ‘역사 계열’과의 친연성이 크다. 한문본의 경우 李如松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러 곳에 드러나 있으나, 이여송이 의병장 金德齡을 발탁하여 최대 후원자가 된다는 설정, 이여송이 꿈에 나타난 關羽의 계시에 의해 이순신을 증용하여 큰 업적을 이루게 한다는 설정, 이순신 사후에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에 대패하여 위기에 빠졌다가 결국 이여송의 활약으로 왜군을 궤멸시킨다는 설정 등에서 보듯 이여송과 명나라 군대, 그리고 그들을 돕는 관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글본에는 이여송의 부정적 면모가 추가된 가운데 의병장의 활약을 강조하고 이순신 사후 광재우의 활약을 대폭 확장하는 등 민족·민중의식의 투영으로 해석되는 장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여송에 반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설정된 宣祖가 이여송이 조선의 혈맥을 끊는 일을 마지못해 후원하고 광재우 역시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최일영 계열’과 마찬가지로 이여송에 대한 서술에 일관성을 잃은 점이 발견되는 등⁶⁾ 허구화의 일관된 논리를 찾기 어렵다.

4) 강홍립은 임진왜란과 전혀 무관한 인물인 테다, 丁卯胡亂. 전후 강홍립의 행적은 당대에 워낙 널리 알려진 상황이나, 시사와 역사에 어두운 하층 자작의 맥락 없는 상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일영 계열’(박순호 교수 소장 한글본)의 해당 대목은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2』(전주대출판부, 1996), 76~83면 참조.

5) 한편 ‘최일영 계열’의 일부 이본은 李如松에 대한 서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여송이 작품 전반에 걸쳐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형상화되다가 결말부에 이르면 조선의 혈맥을 끊는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된 점이 그러하다(‘최일영 계열’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한글본 및 서울대 도서관 소장 한글본;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2』, 205면 및 242면 참조). 기존에 전승되던 <임진록> 혹은 이여송 관련 전쟁 설화를 바탕으로 후대에 이르는 상반된 시각의 설화가 첨가되면서 발생한 모순으로 생각된다.

6) ‘관운장 계열’ 한문본의 결말부에서 이여송은 조선의 혈맥을 끊는 데 이어 조선을 찬탈할

한편 <임진록>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어 있다.⁷⁾ 일단 최문정 교수가 ‘역사 계열’ 및 그 변형 계열에 속하는 이본의 선후관계를 고찰한 방법⁸⁾을 <임진록> 주요 계열에 적용할 때 ‘역사 계열’ 한문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어송이 宣祖에게 제왕의 기상이 없다며 철군을 결정했다가 선조의 울음소리를 듣고 선조가 바로 ‘큰 바다에 몸을 숨긴 용’이라며 생각을 바꾸는 단락이다.⁹⁾ 이 話素는 <임진록>의 핵심 세 계열 모두에 공통된 것이다. ‘역사 계열’에서 선조의 울음소리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 반면, ‘최일영 계열’과 ‘관운장 계열’ 한글본에서는 최일영 혹은 이항복이 선조로 하여금 일부러 울음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거나 선조가 울음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독 안에서 곡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¹⁰⁾ 최일영과 이항복의

마음을 품기에 이르고(원광대 도서관 소장 한문본;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2』, 432면 참조), 한글본에서는 이어송이 명나라 황제의 재가를 얻고 선조와 객재우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혈맥을 끊다가 산신령에게 죽임을 당한다(권영철 교수 소장 한글본; 같은 책, 479~480면 참조).

- 7) 역사 계열 한문본 <임진록>의 창작시기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려 있다. 임철호 교수는 한문본을 비롯한 <임진록> 모든 계열의 성립 시기를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 사이로 보았고(임철호, 『임진록 연구』, 397~398면 참조), 특히 한문본의 경우 『旬五志』·『燃練藜室記述』·『耳溪集』·『溪西雜錄』 등 17세기 후반 이후의 문헌 기록을 토대로 변용을 가한 결과라고 추정한 바 있다(같은 책, 50~65면 참조).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한문본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 문헌 중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따질 만큼의 유사성을 가진 기록은 없다. 구체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면 <임진록> 한문본이 다른 계통의 문헌 기록이나 구비설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항상 남는바, 18세기 이후 문헌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한문본의 창작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또 ‘丹室居士’ 『임진록』(『宣廟中興志』)의 宋象賢 관련 기사가 자세하게 서술된 점을 들어 한문본이 그와 유사한 시기, 혹은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으나(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1』, 33~39면 참조), ‘丹室居士 <임진록>’과 한문본 <임진록>의 해당 서사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논할 만큼 유사한 구절이나 공통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한문본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한편 丹室居士를 閔純之로 단정하여 그 형성 연대를 1738년으로 추정한 것 또한 아직 불확실하다고 본다). 임철호 교수와 달리 최문정 교수는 한문본이 임진왜란 직후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일본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지 않은 점, 중화사상이 두드러진 점, 김덕령에 대한 鑠魂 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天命論과 조선 文臣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武將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을 들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임진왜란 직후 명나라 멸망 이전 朝·日 교섭이 이루어지던 때로 추정했으나(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 39~40면 및 119~124면 참조) 이 또한 추정의 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8) 최문정, 앞의 책, 87~92면 및 281~284면 참조.
- 9) <壬辰錄>(역사 계열 한문본), 장22 참조. 이 단락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4장에서 재론한다.

행동은 이여송이 선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철군 결정을 바꾸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내린 조치다. 다시 말해 작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일영과 이항복의 지혜(혹은 예지력)를 돋보이게 하고자 한문본에 수용된 해당 화소를 변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정이다. ‘역사 계열’ 한문본에 담긴 해당 화소의 초기 형태가 ‘최일영 계열’과 ‘관운장 계열’에 변용된 형태로 수용된바, 이 점 한문본과 다른 두 계열의 선후 관계를 살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진록> 역사 계열 한문본은 실제 역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관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요 계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기억의 변형 혹은 왜곡 과정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주된 대상으로 역사 계열 한문본을 택한 이유다.

2. 영웅 豊臣秀吉

<임진록>¹¹⁾의 서두에는 일본의 기원 및 지리적 정보에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의 출생담이 배치되어 있다. 침략국 일본과 그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히데요시의 출생담을 길게 서술한 점은 특이하다.

皇明 嘉靖 연간에 왜적이 강남에서 杭州로 들어오자 항주 사람 朴世平이

10) ‘최일영 계열’과 ‘관운장 계열’ 한글본의 해당 단락은 임철호, 『임진록 연구』, 144~145면 및 230~231면;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1』, 66~67면 및 468면 참조. ‘관운장 계열’ 한문본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는 대신 선조가 삼각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온종일 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같은 책, 425면 참조), 이여송이 서울을 수복한 뒤 선조를 처음 만나 퇴군 명령을 내린다는 설정이 어색하다. ‘역사 계열’ 한문본에서 선조가 의주에서 이여송을 만난 뒤 이여송의 퇴군 명령에 조정의 모든 신하와 의주성의 인민들이 방성대곡하고 이항복이 통곡한 데 감응하여 그 자리에서 선조가 곡하는 설정이 자연스럽다.

11) 이하 본문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언급하는 <임진록>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을 가리킨다.

난리 중에 죽었다. 그 아내 陳氏는 자색이 천하 으뜸이었는데, 이 때문에 왜적에게 붙잡혀 殺馬島로 가서 平伸의 아내가 되었다. 박세평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임신 중이던 진씨는 해산할 날짜에 이르자 黃龍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놀라 깨어 보니 기이한 향내가 방 안에 가득하고 누런 기운이 자욱하더니 곧이어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골격이 대단히 빼어나고 용의 머리에 호랑이의 입, 원숭이처럼 긴 팔에 제비턱을 가져 참으로 천하 귀인의 상이었다. 이름을 秀吉이라 지으니, 실은 박씨의 후예였다.

秀吉은 세 살이 되자 배우지 않고도 재주를 이루었고, 兵書와 지모를 검비했다. 秀吉은 사방을 돌아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關伯을 만났다. 관백은 秀吉의 기상을 보고 사랑하여 아들로 삼고는 함께 돌아와 국사를 의논했다. 그러자 일본 66주가 秀吉의 권위에 복종하고 바다 여러 나라들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群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마침내 秀吉은 일본의 임금 源氏를 폐하고 스스로 大黃帝라 칭하며 연호를 天正이라 한 뒤 여러 섬을 병탄했다.¹²⁾

히데요시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영웅 일대기’ 구조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부친을 명나라 杭州 사람 朴世平이라 거듭 강조한 점도 흥미롭다.¹³⁾ 조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국 혈통에 ‘生而知之’의 능력을 가진 불세출의 영웅으로 그린 이유가 궁금하다.¹⁴⁾

12) “皇明嘉靖間，倭賊自江南入杭州，杭州人朴世平死其亂，其妻陳氏，姿色冠天下，以故被拘而入于殺馬島，爲平伸妻，在世平時，已有娠矣。及其解胎之日，陳氏夢黃龍捉胸，驚悟而視之，異香滿室，黃氣氤氳，乃生男子，骨格奇俊，龍顏虎口，猿臂燕頰，眞天下貴人之像也。名曰秀吉，實朴氏之裔。三年不學而成，兵書智謀兼備，自有四方之志，遍遊山川，見關伯，關伯見其氣像愛子，遂携而歸，與語國事，倭六十六州威服，海中諸國四方聞風，群雄如雲集。於是秀吉，遂廢倭帝源氏，稱以大黃帝，建號天正，并吞諸島。”(〈壬辰錄〉, 장1) ‘天正’이 저본에는 “天定”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잡았다. 天正은 1573년부터 1592년까지 쓰인 일본의 연호이다. 한문본 <임진록>에는 誤脫字가 대단히 많은바, 이하 校勘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

13)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출신이라는 주장은 명나라의 몇몇 문헌에 보이지만, 물론 사실이 아니다. 유성룡 역시 『懲懲錄』에서 히데요시가 “본래 중국인인데 倭國으로 흘러 들어왔다”(華人, 流入倭國)는 말이 있다고 간단히 언급한 바 있으나 이를 그대로 신빙하지는 않았다(류성룡 저,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아카넷, 2013, 100면 및 105면 참조).

한편 <임진록>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육군 40만,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와 馬多時가 수군 40만을 거느려 총 84만의 대군이 조선 침략에 나선 것으로 기술했다.¹⁵⁾ 그러나 널리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에 동원된 일본의 실제 병력은 대략 20만 명, 일본 나고야에 머물던 예비 병력을 합해도 2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당시 세계 최강 군대로 평가받기도 하는 일본의 20만 군사라면 대군임에 틀림없지만 <임진록>에서 “왜적 백만 대군의 기세가 태산과 같다”¹⁶⁾는 등 수시로 80만 내지 100만으로 언급되는 일본의 병력 숫자는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

일본 장수에 대한 서술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명나라의 總兵 劉綎이 일본과 和議를 추진하는 척 계략을 부려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식견과 용맹을 경탄에 가까운 시선으로 그린 대목이 대표적이다.¹⁷⁾

정리해 보면 <임진록>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역들을 긍정적으로 그렸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일본의 전력을 한껏 과장하는 설정을 취했다. 서두에 놓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그 극대치에 해당한다. <임진록>의 작자는 왜 이렇

14) 임철호, 『임진록 연구』, 43~45면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국 혈통으로 설정한 점을 본고와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해석한 바 있다. “자신의 내력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는 중원을 도모하려 하는 침략적 야욕을 가짐으로 조국을 배신하는 逆天의인 존재”(44면)로 만들고자 한 설정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 전체, 특히 “일본 66주가 秀吉의 권위에 복종하고 바다 여러 나라들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군웅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라는 구절 등에서 알 수 있듯, 히데요시는 逆天의 존재라기보다 불세출의 영웅 형상으로 일관되게 서술되었다.

15) “萬曆壬辰, 秀吉選精兵八十萬騎, 召清正曰: ‘汝與平行長, 領四十萬兵, 出自釜山, 陸路行軍, 襲擊三南, (….) 入據漢陽, 送一枝軍兵, 往襲平壤.’ 又召沈安屯馬多時曰: ‘汝等領四十萬兵, 水路行軍, 自長山串, 派至鴨綠江, 拒塞北路.’ (….) 倭賊八十四萬兵, 來泊釜山, 時壬辰四月十二日.”(<壬辰錄>, 장4뒤~장5앞) ‘馬多時’는 구루시마 미치후사(來島通總)라는 설도 있고, 간 마사카게(菅正陰)라는 설도 있는데, 모두 명량해전 때 전사한 일본의 수군 장수이다.

16) “百萬倭兵, 勢如泰山.”(<壬辰錄>, 장9뒤)

17) <壬辰錄>, 장32앞 참조. 이밖에도 왜군의 한양 점령 직후 가토 기요마사가 장수들에게 전략을 지시하는 대목(<壬辰錄>, 장10),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교묘한 계략으로 申砮의 군대가 전멸하는 대목(<壬辰錄>, 장10), 일본의 장수 宗一을 친하의 명장으로 높이는 대목(<壬辰錄>, 장14앞),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 패하여 울산으로 밀려와 전투를 벌이는 대목(<壬辰錄>, 장31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을까?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인과 히데요시에 대한 적개심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를 한문본 원본의 창작시기와 연관 지어 해명한 바 있다. 한문본의 성립 시기가 임진왜란 종전 이후 朝·日 교섭이 이루어진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조선 민족이 품고 있던 적개심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평소 오랑캐로 멸시하던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으로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히데요시를 중국인으로 설정했으리라 추정했다.¹⁸⁾ 작자의 발상이 엉뚱해 보이지만 나중의 이유가 핵심에 닿아 있다고 본다.¹⁹⁾

조선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일본의 우두머리가 섬나라 오랑캐 귀수여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호걸이어야 하고 그것도 ‘中華’의 혈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덧붙여 일본 장수들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 병력을 과대평가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작자의 생각은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대의 영웅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같은 불세출의 명장과 최강의 군대를 동원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 조선이 속수무책 패배했던 과정을 되짚어볼 때 몇 가지 실착을 지목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덩이 고기가 사나운 호랑이의 아가리 앞에 놓인 격”²⁰⁾이라 비유될 만큼 애당초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었다.

기억의 한 측면을 과장하고 허구적 기억을 덧붙인 결과 임진왜란은 천하 무적의 일본을 상대로 조선이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 전쟁’의 책임을 질 사람은 지목하기 어렵다.

18) 최문정, 앞의 책, 39~40면 및 56~57면 참조.

19) 앞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0) “一塊之肉，拒猛虎之口。”(<壬辰錄>, 장8앞)

3. 조선 조정의 무능과 의병·관군의 한계

<임진록>을 보수적인 시각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규정하는 쪽에서는 한 문본을 비롯한 <임진록> 전반이 전란의 참상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본 바 있다.²¹⁾ 그러나 <임진록> 한문본의 경우 전란의 참상과 왜군의 악행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축소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왜군이 부산·김해 일대를 유린하던 임진왜란 초의 상황, 李如松의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이 평양성을 수복한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서술에 이어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전란의 참상과 민중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²²⁾ 이를테면 서울 수복 직후의 광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李如松의 대군이 마침내 도성으로 들어왔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귀신의 물골을 하고 있었고, 방방곡곡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 썩는 냄새가 코를 찼었다. (...) 적병은 싸움에 지자 더욱 독기를 품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보이는 무덤마다 파헤쳤으며 집을 불태우고 소와 말을 약탈했다.²³⁾

이처럼 전쟁의 참상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면 왜군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사태를 이렇게 만든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21)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그러하다. “『신조실록』 등은 당시의 비참한 실상을 낱낱이 서술하고 있는 데 반해, 『임진록』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묘사하고 있다.”(최문정, 앞의 책, 35면) 전란의 참상을 축소 서술함으로써 지배층의 책임을 경감해 보고자 했다는 해석이다.

22) “慶尙道賊勢大熾，屠殺人民，尸積如山，避亂之人，又相蹂躪，死者以億萬數。”(<壬辰錄>, 장6뒤) “如松入平壤城，人民饑死，屋宇皆空，若干餘民，形如餓殍。”(<壬辰錄>, 장23앞) “查大受踰馬山峴，有稚兒，其母已死，而抱乳呱呱，慘不忍見矣。都城街路，尸積如山，而或有餘民，爲賊使喚，痛號之聲，夜以繼日，圻內之民，不能止接，飢餒顛仆，遍野嗷嗷。”(<壬辰錄>, 장24앞)

23) “李如松大軍，遂入都城，餘民塗炭，神形鬼狀，坊坊曲曲，尸積如山，腐臭盈鼻。(...) 賊兵敗甚生毒，遇行人殺之，見墳墓掘之，燒人屋宇，掠人牛馬。”(<壬辰錄>, 장25앞) 이후 서울에서 밀려 내려가는 왜군의 악행도 차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왜적이 진주성에서 6만여 명의 인민을 살해했다는 다음의 기술이 대표적이다. “賊遂入晉州城，屠殺人民，燒盡屋廬，前後殺者，合六萬餘人，積尸柴上，縱火焚之，臭聞五六里。”(<壬辰錄>, 장26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임진록>에서는 왜군 장수들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²⁴⁾ 그렇다면 宣祖를 비롯한 조선의 지배층이 그 책임을 오히려 저야 옳다. 이와 관련된 서술을 살펴보자.

왜국 사신이 처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재상 尹斗壽는 朝講에서 ‘당장 명나라에 알리지 않으면 훗날 필시 사단이 생긴다’라고 극렬히 말했다. 그러나 재상 유성룡은 ‘일의 결말을 헤아리지 못하고 급히 명나라에 보고했다가는 훗날 필시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무리는 윤두수의 말을 주장하고, 다른 한 무리는 유성룡의 말을 주장하며 논쟁이 결판나지 않아 조강이 저녁 때 이르러서야 끝났다. 이처럼 大義가 분명한 일에 대해서도 사사로운 뜻으로 싸웠으니 그 밖의 다른 일에 대해서야 더 논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²⁵⁾

임진왜란 발발 전 히데요시의 전쟁 의사를 분명히 전달 받은 직후 그 대책을 의논하는 조선 조정의 풍경이다. <임진록>은 서술자의 개입이 매우 드문 편인데, 서술자는 이 대목에서 직접 목소리를 드러내 조정 신하들의 논쟁이 “私意에 의한 다툼”에 불과함을 엄중히 꾸짖었다. <임진록>의 서술자는 위의 문체에서 西人 윤두수의 입장을 지지하는바, ‘대외가 분명한 일’이라는 것은 즉시 명나라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임을 뜻한다.²⁶⁾ 그렇긴 하지만 작자는 西人の 편에 서서 東人 전체를 비난하지 않고 비난의 초점을 유성룡에 맞추거나 동인과 서인 모두에 대해 양비론에 가까운 태도를

24) 앞서 살핀 허구적 내용 외에 동래 부사 宋象賢의 충의에 왜장이 감탄하는 대목(<壬辰錄>, 장5뒤~장6앞), 금산 전투에서 해남 현감 邊應井과 김계 군수 鄭湛이 전사하자 왜장이 이들을 기려 충신으로 예우하는 대목(<壬辰錄>, 장19뒤) 등 역사서에 실린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일본 장수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더욱 강화된다.

25) “倭使始請假道時, 尹相斗壽, 因朝講極說: ‘不卽聞天朝, 後必生事.’ 柳相成龍謂: ‘不料未終, 而遽爾奏聞, 後必有戰處.’ 於是一隊人主尹說, 一隊人主柳說, 爭論不決, 朝講至夕時方罷. 如此大義分明處, 尙以私意相爭, 尙他何論?”(<壬辰錄>, 장3뒤)

26) 이후 일본에서 재차 명나라 침략의 뜻을 밝혀 조정에서 명나라에 보고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유성룡의 무리가 여전히 이를 가로막은 점을 부정적 시각에서 서술했다(<壬辰錄>, 장4앞 참조).

취했다.²⁷⁾ 조정 신하들이 사사로운 뜻을 품고 黨爭을 벌임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²⁸⁾

<임진록>에서는 전쟁 초기 “적병이 가득했지만 막을 자가 없었고 조정에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²⁹⁾라거나 정유재란 발발시 “이때 조정은 적의 세력이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으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³⁰⁾라는 등 조정의 무능과 무기력을 줄곧 공박해 왔거니와³¹⁾ 그 극치는 忠武公 李舜臣의 최후 장면이다.

이순신이 군사를 풀어 沈安屯을 축출하니 그 나머지 주둔하고 있는 왜군은 근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자 이순신은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간사한 사람이 많아 공이 있는 자를 해코지하고 재주 많은 자를 다치게 한다. 지금 왜적이 패주하고 시절이 평안해지면 장차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다치게 할 몇 사람의 元均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차라리 싸움터에서 죽어 천 년 동안 나라의 제사를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겠는가!’

마침내 투구와 갑옷을 벗고 뱃머리에 서서 큰소리로 외치며 싸움을 독려하

27) 유성룡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역시 유성룡과 같은 南人 계열의 金誠—이 일본의 움직임을 오판한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후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과장된 필치로 극찬한 점이 흥미롭다(<壬辰錄>, 장15 및 장26 뒤 참조).

28) 정유재란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명나라 沈惟敬 등이 휴전 협상을 위해 일본에 갈 때 따라갔던 黃愼과 李奉春이 돌아와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했는데, 황신은 일본이 다시 전열을 갖추어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한 반면, 이봉춘은 일본 쪽에 별다른 전쟁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당과 간의 대립이 ‘私意에 의한 다툼’이라며 양비론을 취하며 함께 斥和를 주장하는 중에도 동인과 서인의 공격 대상이 黨派에 따라 달랐던 점을 꼬집어 당쟁의 폐해를 비판했다(<壬辰錄>, 장28 참조).

29) “賊兵充斥, 無人禦止, 朝廷全然無聞矣.”(<壬辰錄>, 장6뒤)

30) “時朝廷聞賊勢甚急, 惶惶顛倒, 計無所出.”(<壬辰錄>, 장30앞)

31) 조정의 무능과 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副元帥 申格을 처형한 일이다. 신각은 도원수 金命元이 한강 방어를 포기하고 도주하자 따로 楊州의 군졸을 수습하여 왜군 70명의 首級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육지에서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둔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오히려 신각이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김명원의 狀啓가 올라와 우의정 俞泓의 발의에 의해 참형에 처해졌다. 선조는 뒤늦게 신각의 승전보를 듣고 형벌을 멈추고자 했으나 이미 참형이 집행된 뒤였다(<壬辰錄>, 장10앞;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18일;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5월 1일조 참조). 한편 官軍 지휘자 尹先覺이 의병 활동을 방해한 기록 또한 <임진록>에 들어 있다(<임진록>, 장14뒤 참조).

다가 문득 탄환에 맞았다. 장막 안에 누워 조카 李堯을 불러 왜군을 평정할
방책을 일러 주고는 군중에서 생을 마쳤다.³²⁾

작자는 이 단락의 제목을 ‘李舜臣故中流丸’(이순신이 고의로 탄환에 맞
다)이라고 붙였다. 이순신의 戰死가 실은 자결이고, 임진왜란의 최고 영웅
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원군과 같은 奸人の 음모와 이를 둘러싼
조정 신하들 간의 모함과 당쟁이라 본 것이다. 요컨대 <임진록>의 서술자
는 조선의 전쟁 대응 실패 원인을 私意에 의한 黨爭에서 찾았다.

한편 임진왜란 초기에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던 조선은 차츰 전열을 가다
듬으며 치열한 저항을 벌였다. <임진록>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사람은 역시 이순신으로, 그 신출귀몰한 전술은 『三國志演義』의 諸葛孔明
못지않다.³³⁾ 이순신 외에 官軍 장수로는 李鑑·劉克良·金應瑞(金景瑞)·
鄭文孚·金誠一 등이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다.³⁴⁾ 특히 李鑑과 金誠一 관련
서술은 상당한 과장 내지 허구가 섞인 것이어서 흥미로운데,³⁵⁾ 여기서는
李鑑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뒤 달아나는 장면만 들어 보기로 한다.

李鑑이 필마단기로 도주하자 적병이 가까이 추격해 왔다. 이일이 마침내
검을 휘둘러 좌충우돌하니 적병 100여 명이 죽었다. 적병이 감히 접근하지 못
하고 주저하며 돌아서려 할 때 포성이 크게 일어났다. 이일의 말이 놀라 넘어
지자 이일은 말에서 내려 도보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장이 날랜 말에 올라 창
을 들고 이일을 추격했다. 이일은 급히 돌아서 창을 들어 적장의 가슴을 찌르

32) “李舜臣縱兵逐安屯，其餘屯倭，無足憂者，仍此思惟曰：‘我國素多奸人，有功者害之，多才者傷之。即今倭賊敗歸，時節平定，則害我傷我，將不知幾箇元均，吾寧死於戰陣，千載血食，不亦快乎！’乃免胄脫甲，立於船頭，大喊督戰，忽中流丸，歸臥帳中，呼兒子堯，授平倭方略，卒于軍中。”(<壬辰錄>，장32뒤)

33) <壬辰錄>，장15뒤~장17앞 및 장28뒤~장29앞 참조. 작자는 특히 『三國志演義』의 赤壁大戰을 염두에 두고 쓴 전투 장면, 전투가 끝난 뒤 팔에 박힌 총탄을 빼는 장면을 통해 이순신을 제갈공명과 關羽를 한 몸에 체현한 영웅으로 그렸다.

34) 유극량·김용서·정문부에 대해서는 각각 <壬辰錄>，장10，장14앞，장12뒤 참조.

35) 김성일은 關羽와 諸葛亮에 비견되면서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휘하 왜군이 김성일의 명성에 겁을 먹고 전투 한 번 없이 김성일 군대를 피해 갔다는 허구적 설정을 통해 대단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壬辰錄>，장26뒤 참조).

고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말을 달려 扶餘縣으로 들어갔다.³⁶⁾

申硯의 잘못된 전술로 탄금대 전투에서 참패한 뒤 이일이 몸을 빼 달아나는 과정이 꽤 극적으로 그려졌다. 당대의 조선 무장 중 신립과 쌍벽을 이룬다던 이일이지만 홀로 달아나면서 왜군 100여 명을 죽였다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적장을 죽이고 그 말을 빼앗아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 대목의 서술은 어떠한 역사서에도 실리지 않은 허구이다. 이일은 임진왜란 초기 관군의 주요 전장을 두루 옮겨 다니며 패전을 목격했던 흥미로운 인물인데, <임진록>의 작자는 이일이 이끌던 관군의 패배조차 이일로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일로 평가하고 이일의 무용을 기리는 등 시종 이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다가³⁷⁾ 급기야 위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임진록>은 대체로 민중영웅들의 활약에 주목하여 민중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새로 등장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³⁸⁾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문본 <임진록>의 작자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되 민중영웅과 의병들의 활약도 의미 있게 그려냈다. 여기서는 김덕령의 경우만 들어 보기로 한다.

의병장 洪季男과 翼虎將軍 金德齡이 함께 三嘉를 지키고 있는데, 調信(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히 병사들을 독

36) “鎡以匹馬逃走，爲賊兵所逼，遂揮劍左衝右突，賊死百餘，賊不敢近，回馬顧視之際，砲聲大震，鎡馬蹉跌，鎡下馬徒步而走。賊將乘飛馬，持戟而追之，鎡急顧舉鎗刺胸，奪馬騎之，馳入扶餘縣。”<壬辰錄>，장7뒤~장8앞)

37) <壬辰錄>，장7 및 장11 참조.

38) 신태수, 『임진록 연구의 현황과 전망』(『문학과 언어』 11, 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241~243면 및 253~255면 참조. 이 문제에 대해 임철호 교수는 ‘역사 계열’의 경우 지배층의 역사·윤리의식이 반영된 점 및 외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가 결여된 점, ‘최일영 계열’의 경우 민족·민중의식을 지니되 명나라에 대한 대응에서 부분적인 한계를 노정한 점, ‘관운장 계열’의 경우 적극적인 민족의식이 투영된 점을 각각의 특징으로 내세웠다(임철호, 『임진록 연구』, 331~333면 및 413면 참조). 반면 최문정 교수는 <임진록> 전체 계열을 대상으로 상층의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작품이라는 견해를 제출했다(최문정, 앞의 논문, 49~177면 참조). 이 문제는 이본군 계열마다 개별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러하여 산 위에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세우고 허수아비들에게 창검을 들러 陣頭에 세운 다음 才人軍에게는 색동옷을 입혀 그 뒤에 진을 치게 하는 한편 馬上立軍은 공중으로 몸을 날려 말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며 신기한 모양을 보이게 했다. 그러자 왜적은 괴이하게 여겨 진을 견고하게 짜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 적병이 일시에 총을 쏘자 馬上立軍은 총알을 피해 물구나무를 서서 말안장 뒤로 숨었다가 일시에 다시 일어나 말을 달려 쇄도하며 철퇴를 마구 휘둘러 쳤다. 그때 홍계남과 김덕령이 적진으로 곧장 들어가 적병을 죽이니 잠깐 사이에 적병의 태반이 죽었다. 왜적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의논했다.

“이들은 神兵이니 대적할 수 없다. 밤을 틈타 달아나는 게 최선이다.”³⁹⁾

三嘉 전투에서 김덕령이 이끄는 才人軍의 활약을 활기찬 필치로 그린 대목이다.⁴⁰⁾ 서커스를 하는 才人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묘기를 부리며 왜군을 압박하는 광경을 통쾌하게 그렸다.⁴¹⁾

그러나 이처럼 관군과 의병의 활약이 이어진다 해도 왜군을 격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임진록> 작자의 판단이다. 韓克誠의 海汀倉(지금의 함경북도 김책시) 전투 장면을 보자.

北兵使 韓克誠은 慶源·慶興·會寧·鍾城·穩城·富寧의 병사들을 징발하여 北營으로부터 나오다가 도중에 淸正(의 80만 대군)을 만나 서로 7~8리 거리를 두고 진을 쳤다. 한극함이 진군을 호령하여 기회를 타서 일제 공격에 나섰다. 北道의 병사들은 본래 말 타기와 활쏘기와 검술에 능하여 준마를 타

39) “義兵將洪季男·翼虎將軍金德齡，共守三嘉，聞調信殺來，急督軍兵，堅紅白旗于山上，而草人持槍劍，結陣前，令才人軍，具五色斑衣，結陣於後，馬上立軍，飛躍空中，倒立馬上，而示神異之狀，賊竊怪之，堅壁不出。(…) 賊兵一時放銃，馬上立軍，佚丸而倒，裹于馬鞍，一時復起，馳馬殺到，而鐵椎亂擊，季男·德齡，直入廝殺，俄忽之間，賊兵大半死矣。賊大懼相議曰：‘此神兵，不可敵，莫如乘夜逃亡矣。’”(〈壬辰錄〉, 장26뒤~장27앞)

40) 김덕령 군대의 활약상은 한문본의 서술이 같은 역사계열에 속하는 한글 京板本에 비해 간결하지만 오히려 활기가 있다. 반면 경판본에 들어 있는 김덕령의 억울한 처형 장면이 한문본에는 빠져 있다(경판본 <임진록>, 소계영·장경남 역주, 『임진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3, 195~199면 및 225~227면 참조).

41) 이밖에 관계우의 무용과 지략을 그린 대목도 특기할 만하다(〈壬辰錄〉, 장20 참조).

고 날 듯이 적진을 유리하니 죽은 왜적이 2만여 명이였다. (...) 이때 적장 景監老가 40만 군사를 거느리고 明川을 함락한 뒤 安邊으로 향하다가 淸正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昌平으로 와서 병력을 합해 공격했다. 한국함은 불의의 일을 맞아 당해나지 못하고 패하여 鐵嶺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 初更에 군중에 영을 내려 저녁밥을 짓게 했는데, 적병이 어둠을 타고 고개를 넘어와 일시에 불을 지르며 함성을 질렀다. 한국함은 깜짝 놀라 급히 병사들을 재촉하여 불을 무릅쓰고 싸움을 독려했으나 기운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큰 늪에 빠졌다. 적군이 쫓아와서 썩은 풀 배듯 유리하니 순식간에 한국함의 병사들이 남김없이 전멸하고 말았다.⁴²⁾

왜군의 병력 규모, 초기 전투에서 조선군이 거둔 전과 등 『선조실록』이나 『징비록』 등의 해당 기록에 비해 과장과 허구가 대단히 많은 장면이지만,⁴³⁾ <임진록>에서 반복되는 전투 패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군과 의병이 곳곳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곧이어 중과부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임진록>에 서술된 주요 육지 전투의 공통된 과정이다.⁴⁴⁾

작자는 최소한 陸地戰에서만큼은 조선의 힘으로 일본군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金命元과 李恒福이 선조에게 한 다음의 말이 작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을 다시 統制使로 삼은 뒤에야 도적을 막을 수 있고, 權俠으로 하여금 天朝에 구원을 청한 뒤에야 조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⁴⁵⁾

42) “北兵使韓克誠，發慶源慶興會寧鍾城穩城富寧兵，出自北營，道遇淸正，相距七八里而結陣，號令一軍，乘機齊發，北道軍兵，素習騎馬弓箭，飛揚健馬蹂躪，賊死者二萬餘人。 (...) 於是賊將景監老，領兵四十萬，攻陷明川，方向安邊，聞淸正大敗，急向昌平，合兵攻之。克誠出其不意，莫能抵當，敗屯鐵嶺。是夜初更，傳令軍中，方炊夕飯，賊兵乘昏踰嶺，一時放火，喊聲震動，克誠大驚，急促軍兵，冒火督戰，氣盡力竭，引兵南走，乃陷大澤中，賊軍殺來，如刈腐草，須臾兵無遺類矣。”(<임진록>, 장11)

43) 류성룡 저,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236~239면 참조.

44)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高彦伯과 任旭景의 대동강 전투(<壬辰錄>, 장12), 趙憲의 금산 전투(<壬辰錄>, 장14뒤~장15앞), 元豪와 邊應星의 여주 남한강 전투(<壬辰錄>, 장19뒤) 등이 모두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

45) “以李舜臣，更爲統制使，然後盜賊可禦，使權俠乞援於天朝，然後朝鮮可復也。”(<壬辰錄>，

모함에 의해 파직당한 이순신을 재기용해야 바다를 장악해 일본의 전쟁 수행을 저지할 수 있고, 명나라의 구원에 의해서만 조선 영토를 모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작자의 생각이다.

4. 명나라의 ‘再造之恩’과 조선 국왕의 권위

<임진록>에서 명나라의 구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은 임진왜란 초기 장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직전 명나라에 일본의 움직임을 알려 명나라의 답변을 받자 “멀망해 가던 나라를 다시 살려 준 것은 실로 이 일로부터 비롯되었다”⁴⁶⁾라고 했고, 선조가 피난길에 올라 東坡驛에 이르렀을 때 선조와 이항복은 조선 병력으로는 왜적을 당해낼 수 없으니, 오직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⁴⁷⁾ 명나라가 참전을 결정하자 명나라의 파견 군사와 보급 군량 내역을 자세히 기술하고 명나라 神宗이 조선에 보낸 慰諭文 전체를 장황하게 인용한 뒤 神宗이 내린 각종 물품에 감격하기에 이르는 서술 모두가 명나라의 힘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⁴⁸⁾

조선 구원의 열쇠를 가진 절대자가 神宗이라면 직접 전장에 나서 조선을 구할 구세주는 李如松이었다. 이여송의 등장 장면부터 44만 명나라 군대의 위용과 함께 이여송의 신기한 무용을 칭송하며 장차 이여송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⁴⁹⁾ 평양성 전투 이후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여송을 두고 “천하의 영웅이라 그 예봉을 당해낼 수 없다”⁵⁰⁾며

장30앞) 원문에는 ‘權俠’이 “權攝”으로 되어 있다.

46) “再造邦實本於此.”(<壬辰錄>, 장4뒤)

47) <壬辰錄>, 장9앞 참조.

48) <壬辰錄>, 장21뒤~장22앞 참조. 慰諭文은 神宗의 勅諭 全文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2일조 참조). 神宗은 정유재란 때 명나라 군사를 다시 파견하면서 조선을 처지름 몹시 긍휼히 여기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壬辰錄>, 장30뒤 참조).

49) <壬辰錄>, 장22앞 참조. 그러나 실제 이여송 휘하의 병력은 4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선조실록』, 선조 26년 1월 11일조; 『교감·해설 정비록』, 373면 참조).

50) “李如松用兵, 天下英雄, 其鋒不可當.”(<壬辰錄>, 장23앞)

두려워했다. 이어송은 절륜한 무용을 지녔을 뿐 아니라⁵¹⁾ 신통한 통찰력 내지 예지력까지 갖추었다.⁵²⁾

한편 선조가 서울로 돌아온 뒤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어송과 명나라 영웅들의 위상은 극도로 높아졌다.

訓鍊正 金應瑞가 이어송에게 공손히 절하고 말했다.

“오늘 잔치에 유희가 없으니 제가 검무를 추어 즐거움을 보태기를 청합니다.”

이어송이 허락하자 김응서는 장검을 들고 궁전 뜰에 써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쳤다. 문득 빛이 번득이더니 환한 해와 푸른 무지개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모습만 보일 뿐 김응서의 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의 장수들과 조선의 문신들이 감탄하며 칭찬해 마지않았다.

김응서가 장검을 내려놓고 두 번 절한 뒤 말했다.

“저의 재주가 옛날 關雲長에 비해 어떠합니까?”

이어송이 비웃으며 꾸짖었다.

“네 말이 참으로 오활하구나! 너 같은 무리 열 사람이 駱尙志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駱尙志 열 사람이 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며, 나 같은 이 열 사람이 常遇春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常遇春 열 사람이 關雲長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너는 적장 하나의 목을 베고 천하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겨 이처럼 위험한 말을 하니 참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김응서는 몹시 부끄럽고 겸연쩍어하며 얼굴이 흙빛이 되어 나갔다.⁵³⁾

51) <壬辰錄>, 장24뒤 참조.

52) 이어송이 선조와 바둑을 두며 바둑판 형세 속에서 전황을 살피고 승전보가 오는 시각을 정확히 예측하는 장면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壬辰錄>, 장27앞 참조).

53) “訓鍊正金應瑞, 拜手于如松曰: ‘今之宴, 無以爲樂, 請劍舞以助歡.’ 如松許之, 應瑞手持長劍, 立於殿庭, 周回折旋, 倏忽閃鑠, 但見白日青虹, 橫亘于天, 應瑞之身, 不見其處. 中國將士, 本朝縉紳, 莫不歎賞. 應瑞擲劍再拜曰: ‘小將與古關雲長若何?’ 如松笑罵曰: ‘迂闊哉, 汝言也! 汝類十人不能當駱尙志一人, 駱尙志十人不能當我一人, 我等十人不能當常遇春一人, 常遇春十人不能當關雲長一人矣. 汝斬賊將一人, 自謂天下無能敵, 有此危殆之言, 不亦誤耶!’ 應瑞心甚無聊, 面色如土而出.”(<壬辰錄>, 장26)

김응서는 앞서 빛나는 전공을 올린 것으로 서술된, 조선이 자랑하는 무신이나, 이여송 앞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 이여송 휘하의 參將駱尙志, 명나라의 개국공신 常遇春이 거론되며 김응서의 무예는 결국 關羽의 만분지일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關羽 또한 <임진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은 것이 바로 關羽의 도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玄蘇 등이 8만 군사를 거느리고 동대문을 나서는데 홀연 큰 바람이 모래를 일으키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하늘이 어두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무수한 군사들이 창검을 들고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몰며 일제히 함성을 질러댔다. 그 중 한 사람이 적토마를 타고 三角鬚를 날리며 靑龍偃月刀를 들고 눈을 부릅뜬 채 큰소리로 꾸짖자 적병들은 그 위풍에 겁먹어 벌써 태반이 죽었다. 神兵이 날세게 달려들어 바람처럼 우레처럼 마구 베니 순식간에 8만 왜병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다. (…)

行長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 말했다.

“이는 옛날 關雲長의 영령이다! (…) 지금 지체했다가는 관운장의 영령이 필시 다시 공격해 올 테니 장차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군사들을 일일이 점검한 뒤 급히 성문을 빠져나가 한강을 건너 달아났다.⁵⁴⁾

임진왜란 중 명나라의 지휘 아래 서울과 안동·남원 등에 關王廟가 설치되고 關羽 숭배를 퍼뜨리고자 했던 상황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명나라에 대한 감사 표현은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던 臨海君과 順和君 등이 화의 과정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절정에 이른다.

54) “玄蘇等領八萬兵，出東大門，忽然大風揚沙，黑雲蔽路，白日晦冥，不辨咫尺，無數軍兵，各持鎗劍，乘風馭雲，齊聲大喊。其中一人，乘赤兔馬，亘三角鬚，執靑龍偃月刀，張日大叱，賊兵怯於威風，大半已死，而神兵奮迅，風嘶雷殺，瞬息之間，八萬倭兵，無一人遺。(…) 行長聞之大驚曰：‘此古關雲長英靈也!’ (…) 若今遲滯，則雲長英靈，必復襲之，將何以敵之?’ 遂點考軍兵，急出城門，渡漢江而走。”(<壬辰錄>, 장25앞)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뵈고 즉시 이어송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황제의 은덕과 장군의 위엄으로 강한 왜적을 물리치시어 죽어 가던 저희들의 목숨을 보전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온몸을 바친다 한들 再生의 은혜를 갚기에 부족합니다.”⁵⁵⁾

종합해 보면 명나라 황제의 자비와 결단, 불세출의 영웅 이어송이 이끄는 강력한 명나라 군대, 게다가 關羽의 神兵이 조선을 구원한 근본적인 힘이라는 생각이다. 실제 역사와는 모두 차이가 있는 내용이지만 ‘再造之恩’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사건 조합이다.⁵⁶⁾

<임진록>의 작자는 명나라의 ‘再造之恩’을 강조한 반면 조선의 전쟁 대응은 근본적으로 실패에 가깝다고 보았다. 앞서 살핀 대로 몇몇 주요 장수들의 실책과 대신들의 오판을 문제 삼았고, 특히 조정 신하들의 사사로운 마음에 의한 당쟁을 거듭 핵심적인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그 실패의 과정에서 모든 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다름 아닌 宣祖였다. 선조에 대한 <임진록> 작자의 입장은 이중적인데, 이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선조가] 統軍亭에 올라 동쪽을 향해 목 놓아 울며 말했다.

“先王의 200년 基業과 우리나라 삼천리강산이 다 왜적의 손에 들어갔으니, 종묘사직을 누구에게 의탁할꼬? 나는 어디로 갈꼬?”

(…) 이날 鳳凰城 장수에게 공문을 보냈다.

“과인의 나라가 불행히도 남방 오랑캐의 재난을 당하여 골육이 다 흩어지고 오직 성 하나를 지키고 있으니 중국에 들어가 大明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 이 뜻을 황제 폐하께 아뢰어 달라.”⁵⁷⁾

55) “王子諸臣, 謁于上, 卽謝如松曰: ‘皇帝德澤, 將軍威令, 掃斥強賊, 俾保殘喘, 還歸故國, 復見天日, 雖銘心而鏤肝, 摩頂而放踵, 不足以報再生之恩也.’”(〈壬辰錄〉, 장27뒤)

56)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명나라 병사들에 대한 애도 장면이 유독 포함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壬辰錄〉, 장32 뒤 참조). 실제 이어송과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중 범한 여러 가지 중대한 실책은 『선조실록』,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선조수정실록』, 선조 26년 1월 1일조; 『교감·해설 정비록』, 376~444면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임진록>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선조는 피난길에 올라 결국 조선 북쪽 변경의 義州 統軍亭에 이르렀다. 한 발만 더 가면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거늘, 그 반응이라는 것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골육이 다 흩어지고 의탁할 곳이 없으니 명나라 백성이 되고자 한다는 말에서는 국왕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임진록>의 작자는 선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작자는 오히려 선조를 최대한 변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순신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계락을 간파하고 조정의 명령에 불응하며 병사를 움직이지 않다가 元均 등의 모함으로 곤경을 겪는 대목에서 선조의 처사를 보자.

원균이 玄風 사람 朴惺을 시켜 이순신의 참형을 처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자 삼사가 삼습하여 이순신을 잡아다 심문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임금은 이순신의 공로를 아껴서 차마 처벌하지 못하고, 司諫 南以信으로 하여금 이순신 군대의 상황을 살펴계 했다. 남이신이 명을 받고 閑山島로 내려가니 남녀 막론 수많은 軍民이 남이신의 말을 가로막고 울며 말했다.

“사또(이순신)는 충심으로 백성을 구하는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천고제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선생께서는 전하께 이를 아뢰어 무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또께서 도적을 막아 주셔야 만백성이 평안합니다.”

남이신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한산도에 가서 군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순신이 무도하게 행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선 刑訊을 가한 뒤 義禁府에 내려야 합니다.”⁵⁷⁾

구국의 영웅 이순신을 참형에 처할 뻔했던 사건이다. <임진록>에서는 이 사건의 원흉으로 평소 이순신을 시기하여 해코지하고자 요로에 뇌물을

57) “登統軍亭，東向號哭曰：‘先王二百年基業，大東三千里境土，盡入賊人手，宗社誰依？寡人何歸？’(…)是日移文鳳凰城將曰：‘寡人國不幸，遭此南蠻之患，骨肉分竄，只守一城，願入中國，爲大明之民，此意上達皇帝陛下。’”(〈壬辰錄〉, 장12뒤~장13앞)

58) “元均令玄風人朴惺上疏，請斬舜臣，至於三司合啓，以請拿鞫。上戀其功勞，不忍加法，使司諫南以信，廉察軍情，奉命下閑山島，許多軍民，無論男女，遮馬而泣曰：‘李使道爲忠誠恤民之惠，千古一人也。伏願先生達榻前，特使無罪。使道以禦盜賊，以鎮萬民。’以信還白曰：‘臣到閑山島，詳探軍情，則莫不李舜臣爲無狀，刑訊一次，下于義禁府。’”(〈壬辰錄〉, 장29)

쓰며 청탁해 온 원균, 이순신의 실정을 살펴보고 거짓 보고를 했던 남이신을 지목했다. 선조는 어디까지나 이순신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신중을 기했으나, 신하들의 거짓말에 속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선조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수복한 뒤 명나라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조선에 추가 지원병을 보내는 한편 선조에게 여러 물품을 보내고 다음의 詔書를 내렸다.

짐은 한양 땅이 金城湯池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들었거늘, 어찌하여 都城을 지키지 못해 왜적의 소유가 되게 했는가? 혹시 날마다 유람을 일삼으며 軍政을 다스리지 않아 그리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간사한 무리를 멀리하며 臥薪嘗膽하여 會稽山의 치욕을 씻도록 하라.⁵⁹⁾

선조를 질책하고 힐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명나라 황제 神宗이다. 이 점은 和議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쟁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주상의 본심은 원래 和議에 있었으나 황제의 명령이 이처럼 지엄했기에 누차 화의를 배척하는 명령을 내렸다.⁶⁰⁾

<임진록>의 작자는 斥和論의 입장에서 화의를 주장한 유성룡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선조의 본심이 화의에 있었다는 말을 했다. 선조에 대한 은근한 질책이다. 왜 이러는 것일까? 명나라 神宗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록>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부터 화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의 서술은 실제 역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작자는 명나라의 ‘再造之恩’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임진왜란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명나라 황제의 입을 빌려 선조의 실책을 넉넉히 지적한 것으로 보

59) “朕聞漢陽之地，金城湯池，且多堅甲利兵，何故都城失守，爲賊所有？或者日事遊觀，不修軍政而然耶？自今以後，親賢遠奸，臥薪嘗膽，以雪會稽之恥。”(<壬辰錄>, 장25앞) 遼東 都指揮使司가 보낸 咨文에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선조실록』, 선조 27년 6월 4일조 참조).

60) “蓋和事主上本意，而皇帝之命，若此截嚴，故累降斥和之教。”(<壬辰錄>, 장28뒤)

이다. 물론 선조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울 생각은 없다. 앞서 살핀 대로 조선이 처했던 위기는 내부적으로는 선조의 무능보다 조정 신하들의 당쟁,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일본의 힘에 있다.

<임진록>의 작자는 선조를 명나라 황제에게 질책 받아도 좋은 인물로 설정했으나 그 점만 빼면 선조의 위상은 대단히 확고하다.

이여송이 국왕의 기상을 바라보니, 난리를 당해 피난하던 터에 龍顏이 어찌 수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이 行宮으로 돌아가자 이여송이 급히 이항복을 불러 매우 질책하여 말했다.

“조선 국왕에게 제왕의 기상이 없으니, 자네들은 어찌 간계를 부려 나를 시협하는가? 이처럼 나를 업신여겼으니 나는 자네들을 구해 줄 수 없다.”

즉시 퇴군 명령을 내려 징을 울리게 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성에 가득한 인민들이 일시에 목 놓아 울어 곡하는 소리가 진동했다. 이항복이 땅에 엎드려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예의의 나라가 끝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하늘의 명인가! 이 어찌 사람의 일이었는가!”

목 놓아 큰소리로 울자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 임금 또한 목 놓아 우니 그 울음소리가 밖까지 이르렀다. 이여송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말했다.

“누구의 울음소리인가?”

장수들이 대답했다.

“구원병이 돌아간다고 하자 조선 국왕이 곡하는 소리입니다.”

이여송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건 큰 바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용의 소리다!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⁶¹⁾

61) “[如松]望見國王氣像，亂離中播越之餘，龍顏安得不瘦瘠乎？上既還行宮，如松急召恒福，大責曰：‘朝鮮國王，無帝王氣像，汝等以何奸計，姑試我耶？漫我如此，我不救矣。’即下退軍令，鈺錚錚矣。滿朝臣僚，盈城人民，一時號哭，哭聲震動。恒福伏地太息曰：‘禮義之國，終底淪喪，天乎！天乎！此何人哉！’放聲大哭，感動宸衷，上又號哭，聲徹于外，如松聞而大驚曰：‘是誰哭聲也？’諸將對曰：‘以援兵退歸故，朝鮮王號哭耳。’如松喜曰：‘是龍藏蒼海之音，不亡其國矣。’”(〈壬辰錄〉, 장22)

<임진록>에서 이여송은 귀신같은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여송은 선조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난 중에 수척한 선조의 얼굴을 보고 가짜 임금을 내세웠다고 하며 화를 냈다. 선조의 얼굴에 제왕의 기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여송이 자신을 능멸했다며 퇴군 명령을 내리자 이항복이 탄식하며 울고 선조 역시 목 놓아 울었는데, 이여송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선조가 지닌 제왕의 기상을 알아차린 뒤 조선이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했다. 아무리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선조는 엄연히 제왕의 기상을 가진 존귀한 인물이다. 선조가 있는 한 조선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웅 이여송의 입을 통해 이 말이 선언되는 순간 선조의 지위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임진록>에서 임진왜란은 어떻게 끝을 맺었던가? 1594년에는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겐소(玄蘇)를 보내 항서를 바침으로써 전쟁이 일차 끝났고,⁶²⁾ 이후 명나라 육군과 이순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주력 부대를 격퇴한 뒤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지위를 이은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일본인 500명을 번갈아 인질로 조선에 보내기로 하며 조선의 附庸國이 됨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했다.⁶³⁾ 실제 역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정신승리법’이다.

5. 마무리: 崇明意識과 仁祖反正 이후 국왕의 정통성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임진록>은 임진왜란 종전 이후 조정의 전쟁 평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선조와 조정은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호도하고 공신을 책봉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1등공신은 명나라다. 따라서 조선 내부의 공로자는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구원병을 파견하게 만든 신하들이다. 조선

62) <壬辰錄>, 장27뒤 참조.

63) “己亥, 秀吉病死, 清正之回軍, 蓋以此也. 義智繼立而以爲: ‘朝鮮本非弱國, 而又有中國之弱援, 則一島兵力, 難與天下爭鋒’, (…), 請以五百倭衆, 替番作質, 永結和好, 因爲朝鮮之附庸.”(장32뒤 ~ 장33앞)

내부의 근원적인 힘은 국왕 선조의 절대존엄에 있다. 따라서 선조를 호종 하며 받은 신하들 역시 주요 공로자여야 한다. 전투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둔 지휘관들과 의병장 역시 공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⁶⁴⁾ <임진록>에서는 이순신을 불패의 戰神 같은 존재로 크게 부각하고 몇몇 의병장들의 전과를 기렸으나 대개의 경우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중과부적의 패배에 이르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임진록>에 삽입된 개별 화소들은 임진왜란 당시부터 형성된 것들일 터이나, 역사 계열 한문본의 성립 시기는 孝宗代 이후로 보인다.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 일행이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며 황해도 해주에 머물던 시절을 자세히 기록한 뒤 삽입된 다음 단락 때문이다.

3년 뒤인 을미년(1595) 11월 2일 [海州에 머물던 妃嬪들이] 海州를 떠나 娑城村에 머물렀다가 10일에 서울로 들어왔다. 이때 元宗(仁祖)의 부친 定遠君은 潛邸 시절로 해주 백성 禹命長의 집에 머물다 을미년 10월 7일 우리 仁祖를 낳으셨다. 仁獻王后(仁祖의 모친)가 해산하기 직전 문득 붉은 빛이 환히 비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으며, 인현왕후의 모친 申氏는 붉은 용이 인현왕후의 곁에 있고 어떤 이가 병풍에 “貴子喜得千秋”라고 쓰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 보니 인조가 이미 탄생하셨으니, 聖朝의 中興大業은 실로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⁵⁾

64) 선조를 호종한 관료 86명이 공신으로 책봉된 반면 전공을 세워 공신이 된 이들은 1등공신 이순신·권율·원균을 포함하여 18명에 불과했다. 선조가 주도했던 공신 책봉에 대해 사신(史臣)은 “호종 신하로 공신이 된 자가 80여 명에 이르고 그 중 환관이 24명, 미천한 하인이 20여 명이니, 참으로 외람한 일이 아닌가!”(扈從之臣, 至錄八十餘人, 而中官二十四人, 僕隸之賤, 又是二十餘人, 則不亦濫乎!)라며 명나라의 구원병 파견에 공을 세운 金應南·申黠·鄭岷壽·李好閔, 전공을 세운 이순신·원균·권율 등에 대해서만 녹훈했어야 한다고 했다(『선조실록』, 선조 37년 6월 25일조 참조). 광계우·김천일·고경명 등 임진왜란의 대표적 의병장으로 꼽히는 인물은 공신 책봉에서 모두 제외되었는데, 조정의 처사를 비판한 사신 역시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신 선정의 과정과 의미 맥락에 대해서는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15~22면 참조.

65) “越三年乙未, 以十一月初二日, 離海州, 次娑城村, 至十日, 入京. 時元宗在龍潛, 寓於州民禹命長家, 乃以乙未十月初七日, 誕我仁祖, 仁獻王后臨產, 忽有紅光照耀, 異香滿室, 后母申氏, 夢見赤龍在后側, 又有人書諸屏曰: ‘貴子喜得千秋.’ 既悟, 已而誕, 聖朝中興大業, 實肇

이 단락이 훗날의 加筆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진록> 한문본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이후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⁶⁾ 작품 전반적으로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강조하는 崇明意識이 강하고, 위의 인용에서 선조에서 인조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강조되며, 재구성된 임진왜란사를 통해 병자호란의 치욕을 완화하거나 병자호란 전후의 대응에 대한 의문을 불식하며 인조반정 이후 국왕의 정통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목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전란 복구 작업 이후 ‘北伐論’이 제기되고 이른바 ‘朝鮮中華主義’가 기세를 떨치기에 이르는 17세기 중후반으로 생각된다. 전쟁 이후 조선 사회의 복구 과정에서는 물질적인 손실을 충당해 나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는 일이 더욱 심각한 과제였다. 특히 조정과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청나라에 유린되는 과정에서 무너진 지배층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다. 春秋大義와 對明義理를 표방하며 宣祖에서 仁祖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於此.”(<壬辰錄>, 장25뒤) 이 내용은 <仁祖行狀>, <仁祖大王誕降舊基碑> 등에 실린 것과 유사하다. <仁祖行狀>에 의하면 인조의 외조모 卞山 申氏는 붉은 용이 인현왕후 곁에 있고 어떤 이가 병풍에 여덟 자를 쓰는 꿈을 꾸었는데, 두 글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머지 여덟 자가 “貴子喜得千年”이라 했다(『인조실록』 권50 참조). 한편 이 단락 앞에는 해주 行在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들어 있는데(大駕自江西, 將向海州, 蓋州城亦被焚燒, 惟芙蓉堂, 邀月堂, 中設堂, 敬簡堂, 僅得免焉. 先作行宮於芙蓉堂之西, 大廳二間, 東西房各三間, 南面圍以長廊, 北接邀月, 東連芙蓉, 西迫州城, 不甚宏壯. 又朔宗廟六間於栢林亭舊地, 圍以長籬, 三面巨紅門, 陛下立草家三間, 以爲齋宮直宿之所. <壬辰錄>, 장25), 宋時烈的 <海州芙蓉堂記>(『宋子大全』 권140), 『승정원일기』(영조 49년 12월 13일조 및 정조 14년 3월 16일조), 洪敬謨의 <芙蓉堂記>(『冠巖全書』 책18) 등 현재 전하는 어떠한 관련 기록보다도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주 행제소에 주재했던 이의 기록이 <임진록>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66) 앞서 언급한 대로 한문본 역시 18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17세기에 성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데에는 일본에 대한 빈약한 기본 지식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임진록>의 작자는 대체로 단조로운 형태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바, 17세기 주요 소설의 작가처럼 상층 지식인 내지 뛰어난 문장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작품 서두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임금 源氏를 폐하고 스스로 大黃帝라 칭하며 연호를 天正이라 하고 여러 섬을 병탄했다”(於是秀吉, 遂廢倭帝源氏, 稱以大黃帝, 建號天正, 并吞諸島. <壬辰錄>, 장1뒤)라는 기술, 결말부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그 지위를 이은 자가 對馬島主人 소 요시토시(宗義智)라는 기술(<壬辰錄>, 장32뒤 참조) 등은 단순한 픽션이나 작자 개인의 무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초 정보가 부족한 시대의 산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강조하고자 한 계층, 임진왜란의 기억을 통해 丙子胡亂의 치욕을 완화하거나 병자호란 전후의 대응에 대한 의문을 불식하고자 한 계층의 창작으로 볼 때 앞서 <임진록>의 崇明 일변도의 의식구조가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소재영, 『입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75~88면.
소재영·장경남 역주, 『임진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195~227면.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35~86면.
임철호, 『임진록 연구』, 정음사, 1986, 10~413면.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1』, 전주대출판부, 1996, 7~461면.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2』, 전주대출판부, 1996, 76~242면.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23
5~332면.
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 35~284면.

2. 논문

-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11~35면.
신태수, 「〈임진록〉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235~259면.
신태수, 「〈임진록〉의 현실주의적 성격」, 『새얼어문논집』 7, 새얼어문학회, 1994,
184~202면.

Imjin-rok: Memories of Imjin War

- focusing on *Imjin-rok* history-based classical Chinese version -

Chung, Kil-soo

Imjin-rok is a Korean historical novel in late Joseon dynasty. I researched a method of remembering Imjin War(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distortedly from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author of *Imjin-rok*(history-based classical Chinese version) emphasized that it was impossible Joseon defeated Japan on its own by describing Toyotomi Hideyoshi as the hero of heroes and exaggerating Japanese military capabilities. On the other hand, he attributed blame to party strife of Joseon vassals for failing defense. So he thought the destiny of Joseon depended on the military aid of Ming. As a result, it was described the emperor of Ming as the absolute, commander-in-chief Li Rusong李如松 as a messiah, and Seonjo宣祖 as a key figure who derived rescue from Ming.

The author of *Imjin-rok*(classical Chinese version) wanted to make people aware of Imjin War as ‘successful war’, and attributed ‘the success’ to Ming and Seonjo. It was the same with the estimation of Imjin War that Joseon royal court made after the war. Furthermore, the method of remembering Imjin War in *Imjin-rok* agreed with the thought of the ruling class who wanted to relieve the disgrace of Byeongja Horan(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1636) by emphasizing the worship of Ming dynasty and the legitimacy of Injo仁祖 in succession to Seonjo.

Keywords : *Imjin-rok*壬辰錄, Imjin War壬辰倭亂, history-based classical Chinese version, worship of Ming dynasty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